‘여성-노동소설’의 일 계보*

- 김인숙의 경우

김복순**

차례

1. 왜 ‘여성-노동소설’이란 범주가 필요한가
2. 김인숙 노동소설의 내적 형식 및 특징
   2.1. ‘가족 프레임’의 발명과 중산층의 딸·아내의 젠더 정치
   2.2. 역사적 합창: 노동·반미의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
   2.3. ‘소비되는 데모’와 소시민의 역설
3. 맺는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역사적 형식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내적 형식에서 발견되는 ‘차이’ 및 특징을 김인숙의 80년대 노동소설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80년대에는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였는데, ‘차이’를 인식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당사자 인식’을 도출한 자발적 능동적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가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 학출’이었다. 여성 학출은 현장과 소설의 양 측면에서 ‘80년대적 현상’이자 ‘80년대적 특수성’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성 학출에 의해 생산된 80년대 여성노동소설은 ‘역사적 형식’에 해당한다.

여성 학출은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더 이상 ‘엄마 이야기’에 머물거나 엄마의 기획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엄마 서사’와 결별한다. 또 이들은 이전 시대 여성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었던 ‘여성수난사’와도

* 이 글은 「80년대 여성소설세미나」에서 발표(2017.6.10.)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명지대 교수

결별한다. 이들은 수난보다 희망을, 도식적 전형보다 소시민성의 비판을 통해 획득되는 노동계급성을 보여 주었다. 그로 인해 남성 노동소설 작가와 다른 '고유한 글쓰기'가 도출되었다.

80년대의 대표적 여성 학출인 김인숙은 '역사적 형식'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우선 가족 프레임을 발명해, 우회·확장되는 여성의 노동계급성을 제시하였다. 「함께 걷는 길」 등에 제시된 가족 프레임은 '가정'을 '또 다른' '정치적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현장'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가족 프레임은 노동운동의 계급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리얼리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다양성을 포착케 하는 유용한 서사장치였다. 김인숙에게 있어 가족 프레임과 그것이 선사하는 소시민성(비판 포함), 섬세한 심리묘사로 드러나는 내면성 등은 노동소설의 결함인 도식성, 비변증법적 기계론을 거둬내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79-80:겨울과 봄 사이』와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는 민중해방문학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방법'을 보여 주었다. 이 두 소설에서는 여성노동자가 노동과 반미의 주체로 성장해 가고 있었으며, 민중주의와 여성주의의 결합이 확인되었다. 여성노동자-대학생-어머니, 여성노동자-중간관리자 간의 역사적 합창이 각각 연출되었다. '90년대의 후일담'을 일부 선취하는 「부정」과 「구경꾼」 「가까운 불빛」에서도 아직 '구역질' '가슴 속에 이는 떨림' 등 소시민성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인숙의 소설은 단지 중산층의 소시민성을 비판만 하는 소설은 아니었다. 이는 변혁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동시에 변혁주제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닌, 운동권의 계급성에 포섭될 수 있는 '소시민의 잉여'를 '역설'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김인숙의 여성-노동소설은 일반적인 '민중 프로젝트'와 크게 차이가 있다.

핵심어 : 가족 프레임, 여성노동소설, 여성노동자, 반미, 학출, 여성노동계급성, 소시민성

1. 왜 '여성-노동소설'이란 범주가 필요한가

70년대가 전태일의 분신으로 시작해 김경숙의 죽음으로 마감[1]된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말해준다. 김경숙의 경우에서 보듯 여성노동자는 70년대에도 존재했다. 원풍모방과 동일방직의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70년대 말의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2] 그럼에도 70년대 여성노동자는 '노동자'의 하위 범주에 놓여 있었다. '여성'-노동자보다 여성-'노동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70년 전태일의 분신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인식론적으로 '노동자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나,[3] 학생운동의 노동현장 진출은 극히 소수였으며,[4] 대부분은 아직 노동자의 '대학생 친구'에 머물러 있었다.[5] 70년대 전반기까지 변혁운동의 주체는 대학생이었지 노동자가 아니었다. 또 여기서의 대학생과 노동자는 '남성'에 국한되었다. 석정남의 지적처럼 이 시기 여성노동운동은 '외부(교회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자발적 노동운동이라 보기 어렵다.[6] 당시의 운동권은 계급 문제와 분리된 성 문제가 강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으며, 그 둘이 연관되어 있다기보다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7]

---

1) 김복순,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70년대 노동소설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117쪽.
2)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10~152쪽;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120~314쪽.
3) 구해근, 앞의 책, 114쪽.
4) 70년대에는 학출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는 것도 별 문제 없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오하나, 『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이매진, 2010, 31쪽.
5) 오하나, 위의 책, 22~32쪽.
6) 구해근, 앞의 책, 110~152쪽; 유경순, 『노동자, 자기 역사를 말하다』, 서해문집, 2005, 1~705쪽; 오하나, 앞의 책, 40쪽. 또 학생들도 70년대 말까지 노동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태일 사건은 학생들이 노동문제에 눈을 돌리는 계기는 되었으나 노동문제가 학생운동의 중심축이 되지는 못했다.
7) 이러한 양상은 80년대에도 관철된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은 그

70년대가 '노동자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라면, 80년대는 '여성노동자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존재론적으로도, 인식론적으로도 그러했다. 동일방직에서의 알몸투쟁과 김경숙의 죽음은 여성노동자가 발견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동일방직 노조는 원풍모방의 경우와 달리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모두가 여성이었다. 당대가 중공업보다 경공업 위주인 탓에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여성노동자야말로 노동모순의 핵심이라는 인식의 결과였다.

하지만 70년대 소설은 남자 대학생의 '노동자 친구되기'도, 이중삼중의 노동모순·성모순의 복합성으로 억압 받는 여성노동자를 형상화 하지도 못하였다. 윤정규의 「모반」 「장렬한 화염」 및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 연작,[8] 황석영의 「객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9]을 보면, 여성노동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등장한다 하더라도 '가려진' 존재로 위치되어 있어서 소설 내에서 '행동'이 없었다. 70년대 소설에서 노동운동의 성격은 '민주노조 건설' 및 '경제투쟁' 성격이 지배적이었고, '여성'의 문제가 그 어떤 '차이'로도 인지되지 않았다. 또 70년대 소설에 재현된 노동운동은 특정 지역 한 두 곳에 국한된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역량을 제시해 주지도 못했다. 이것이 여성노동자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를 80년대로 잡는 이유이다.

80년대 소설에는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여성'이 등장한다. 우선 여성노동자들이 자발적, 능동적 주체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여성의 억압적 '위치성' 및 남성과 다른 여성의 '차이'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다. 노동자의 하위범주에 놓이는 '여성인 노동자'가 아니라, '차이'를 지닌 여성노동자야말로 당대의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해결할 당사자라는

사건을 '여성에게 가해진 것으로 보지 말고 노동자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 거름, 1989, 271~273쪽.

8) 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70년대 소설」, 『한국현대예술사대계 Ⅳ』, 시공아트, 2003, 52~61쪽.

9) 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국가비상사태선언 전후 '불평등 정당화/해소'의 방법적 전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2집, 2016.9, 191~223쪽.

소위 '여성노동자들의 당사자 인식'이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여성'은 '여성 학출'이다. 8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 과정은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고, 변혁운동의 주체가 지식인 대학생에서 노동자로 이행하던 시기였다. 존재론적으로도 70년대에는 여성 학출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또 여성 학출에 의한 소설이 생산된 바도 없었다. 또 90년대에는 학출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학출, 그중에서도 '여성 학출'은 오롯이 80년대적 현상으로 읽을 수 있다.

'공장으로 간 여대생'으로 존재전이(存在轉移)를 행한 여성 학출은 여성-지식인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였기 때문에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노동운동에서의 '여성노동자 중심성'은 '여성 학출'을 요구했다. 남성 학출은 야학운동 등에서는 요긴할지 모르나, 여성노동자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숙식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일상 전반에 걸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다. 8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은 이와 같은 이유로 여성 학출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여성 학출은 (여성)노동자의 외부이면서 내부이고, (여성)지식인이면서 노동자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기존의 계급 범주 또는 성 범주를 뒤흔드는 일종의 '사건'의 성격을 띤다. 여성 학출의 태생적인 계급적 기반은 대개 중간계층(중산층)이었지만,[10] 인식론적으로는 노동계급적 성격을 지닌다.

이 새로운 여성들은, 작가이거나 소설의 대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즉 존재론적이거나 인식론적으로, 더 이상 '엄마 이야기'에 머물거나 엄마의 기획의 '대상'[11]이 아니었다. 즉 '엄마 서사'와 결별한다. 또 이들은 이전 시대 여성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었던 '여성수난사'와도 결별한다. 80년대 여

10)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 『사회와 이론』 16집, 2010, 271~300쪽.
11) 나혜석과 박완서 소설 등에는 딸을 신여성으로 만들려는 엄마의 '신여성 기획'이 나타난다. 김복순, 「엄마의 근대화 기획과 '말걸기'」,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 2005, 363~388쪽; 김복순,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 기획과 타자성의 주체」,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윤범모 외, 푸른사상, 2011, 240~269쪽.

성-학출-노동자는 수난보다 희망을 형상화 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기반을 뛰어넘는데 그치지 않고 당대의 주요 모순의 핵심인 노동자와의 연대를 이뤄낸다. 여성 지식인-노동자의 노학 연대는 80년대적인 것으로서, 현장과 소설 양 측면에서 모두 목도되는 오롯이 '80년대적 현상'이자 '80년대적 특수성'이다. 80년대의 여성-노동소설은 일부에 국한되기 하지만 여성노동자의 헤게모니를 관철해 보여준다. 당사자 인식에 도달한 '새로운 80년대적 주체의 탄생' 및 여성-학출-노동자에 의한 '고유한 장르의 산출'이 80년대적 현상이자 80년대적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학출에 의한 80년대 여성-노동소설은 '역사적 형식'에 해당한다. 이것이 80년대에서 '여성-노동소설[12]' 범주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80년대 민중해방문학에 대해서는 크게 정치적 편향성, 노/사=선/악 이분법, 미학적 불균형 등을 들면서 70년대까지의 리얼리즘 전통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부정적 진단과,[13] 노동자 주체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문학적 양식을 창출하고 지식인 문학 장르를 무색하게 만든 문학혁명을 이룬 문학이라는 긍정적 평가로 대분되는 경향[14]이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여성-노동소설이 설 자리는 없었다. 당대의 뛰어난 성과인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도 「함께 걷는 길」 정도만 언급하면서, 노동자 아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15] 당대의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노동소설의 내적 형식이나 특징을

12) '여성-노동소설'이라 부르는 이유는 '여성 학출'에 의한, 즉 작가도 대상도 모두 '여성'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여성-노동소설'로 '여성노동소설' 범주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노동소설'에는 여성노동자에 의한 것, 남성 학출에 의한 것, 비-남(여)성 학출-지식인에 의한 것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여성노동소설은 '여성-노동소설'과 내적 형식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13) 김명인, 「민중·민족문학의 양상: 1970-80년대 문학」, 『새민족문학 강좌 2』, 창비, 2009, 361~370쪽.

14)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11~59쪽.

15)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인식하지 못하였다.[16] 최근 연구는 80년대에 여성해방문학의 '빛나는 성좌'가 도출되었다고 보면서도, 여성해방문학으로서는 '아직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17]

여성해방문학이 '선험적 개념의 틀'로 재단될 경우 80년대 노동해방문학과 같은 도식성에 함몰될 공산이 크다(생산 및 평가 양면에서). 또 여성만의 고유 문제인 출산휴가, 공정한 승진기회 등의 특정한 요소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 전자의 경우 당대에 이미 도식성으로 인한 '감동의 결여가 참다운 선진성의 부재요 민중적 당파성의 실종(백낙청)'[18], 비변증법적 기계론(최원식)[19]이라 비판받은 바 있다. 후자의 경우 '여성-인간'의 문제를 제외하는 편협한 시각이 될 수 있다. 여성해방문학이란 성, 계급, 민족, 인종 범주 등에서의 여성의 '타자성'을 밝히고, 그

67호, 1990, 48~74쪽. 이 논문에서 아내들은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을 획득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비 부담과 값싼 차별임금을 받고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자본으로부터의 이중수탈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당대의 시대적 한계를 바로 보지 않는, '미래로부터의 평가'라 할 수 있다.

16) 김인숙에 대한 연구성과를 보자면, 이명호 · 김희숙 · 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67호, 1990, 48~74쪽; 김재용,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창작과 비평』, 18권 1호, 1990, 383~392쪽; 김명인, 「김인숙의 단편 「함께 걷는 길」」, 『희망의 문학』, 1990, 363~364쪽; 신승엽,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 『창작과 비평』 21권 4호, 1993, 92~109쪽; 채호석, 「여성문제의 자립화와 리얼리즘의 위기」, 실천문학 32호, 1993, 394~414쪽; 김양선, 「주변부에서 읽기의 산문성과 비극성-김인숙과 김형경」, 『실천문학』 41, 1996, 217~232쪽; 김경원, 「더 나은 지평을 향한 심리의 추구」, 『당신』, 해설, 1996, 281~300쪽; 류보선, 「희망을 향한, 멀고도 먼 길」, 『창작과 비평』, 1996, 가을, 156~165쪽;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 김인숙, 공지영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6, 2010, 271~303쪽; 오태호, 「상실의 사랑에서 기억의 회복으로-김인숙론」, 작가세계, 2012, 59~79쪽,: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나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 2015, 514~544쪽; 오자은, 「전환기의 내면, 진정성의 분화-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2, 2017, 285~318쪽 등이 있다.

17)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상허학보』 47, 2016, 409~454쪽.

18) 백낙청,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 비평』, 1989, 74쪽.

19)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 비평』 60, 1988, 293쪽.

타자성의 제 구성요인을 비판함으로써 '알리바이(부재증명)에 그쳤던 여성의 위치'를 극복, 지향하고자 하는 문학으로 규정한다면,[20] 80년대 여성-노동소설은 여성해방문학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드러낸다.

본고는 (여성)노동소설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평가 및 80년대 여성소설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비판하면서, '역사적 형식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내적 형식에서 발견되는 '차이' 및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노동소설의 개념 및 내용을 재검토 하고, 80년대 여성-노동소설을 새롭게 자리매김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성-노동소설의 문학사적 재배치가 가능한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왜 김인숙인가. 80년대 여성 학출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면 공통적으로 김인숙과 공지영을 들 것이다. 둘다 80년대 '초반' 여성-학출이었다. 공지영의 경우 등단작인 「동트는 새벽」(88)이 '여성 학출'의 '노동자 친구되기'를 역력히 보여주지만, 80년대의 작품 수가 적어[21] 90년대 작가로 분리된다. 김인숙은 80년대 초반(82)에 등단하여 질풍노도 같던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새로운' 여성해방적 전망을 제시하려 했던 여성 학출이다.

김인숙은 크게 세 시기로 소시기 구분점을 갖는다. 첫 시기는 등단작인 「상실의 계절」(83)로부터 『핏줄』(83), 『불꽃』(85)이 쓰여진 시기이며, 둘째는 장편 「79-80: 겨울과 봄 사이」(3권, 87. 이후 『79-80』으로 약칭)로부터 단편 「강」(88)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88)를 비롯해 보고문학 「하나되는 날」(88) 등 소설집 『함께 걷는 길』(89)이 발표된 시기이다. 세 번째는 소위 '여성 후일담'시기로 불리는 1990년 이후이다.

여기서는 여성-노동소설이 활발히 발표된 두 번째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번 째 시기는 첫 번째의 '사소한' 것으로부터' '거대 역사/현실'로의 가파른 전환을 보여 주면서 민중문학의 샛별로 떠오른[22] 시기

---

20)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21) '운동'과 관련된 작품은 등단작인 「동트는 새벽」과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두 편 뿐이다.

이다. 이 시기에 김인숙은 여성 노동자를 그리는 여성 학출 지식인의 '위치성'을 가진다. 노동소설이란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노동현실이나 노동문제를 묘사하되 그 극복지향성을 갖는 경우[23]라고 규정한다면, 두 번째 시기의 김인숙의 소설은 노동소설에 속한다.

'외부이면서 내부인' 당대의 대표적인 학출 여성이 두 번째 시기의 가파른 전환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 시기의 소설들은 여성해방문학으로서의 소임과 관련하여 리얼리즘의 확대(재생)인가 아니면 위기를 보여 주는가. 여성 노동자를 통해 재현되는 해방성은 어떤 양상을 띠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김인숙의 소설은 오마주(hommage)의 배제[24]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김인숙을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김인숙이 공지영, 홍희담 등의 다른 학출 여성작가와 다른 형상화 과정 및 내적 형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인숙은 여성노동자를 다룬 다른 남(여)성작가들과 달리 '새로운' 여성노동자되기의 방식을 보여 준다. 80년대 여성노동자를 다룬 여성작가로는 석정남, 신경숙, 공지영, 홍희담 등이 있으나, 김인숙은 이들과 다른 계보를 제시한다. 여성노동자를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석정남들과 신경숙, 김인숙, 공지영, 홍희담, 차주옥의 '방법'은 다르다. '역사적 형식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2) 신승엽,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 『창작과 비평』 21권 4호, 1993, 96쪽.
23) 김복순, 「70년대 소설」, 앞의 책, 52쪽.
24) '오마주의 배제'이론은 랑시에르가 『프롤레타리아의 밤』에서 언급한 것으로서, 지식인 작가가 노동계급에 대한 오마주를 통해 그들이 지닌 의미를 전용하거나 독점한다는 맥락으로 사용되었다. Jacques Rancière, *Proletarian Nights: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 France*, Random House, 2012.

2. 김인숙 소설의 내적 형식 및 특징

2.1. ‘가족 프레임’의 발명과 중산층의 딸・아내의 젠더 정치

김인숙의 소설에서 여성의 노동계급성이 확보되는 양상은 다른 작가의 경우와 다르다. 김인숙은 특히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는데,[25] 등단작 「상실의 계절」과 『핏줄』『불꽃』 등을 거쳐 8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79-80』, 「강」과 「함께 걷는 길」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그리기 시작한다.

김인숙 소설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투쟁 전반을 정면에서 제시하기보다 ‘가족 프레임’을 통해 우회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프레임은 세상을 보는 틀이자 맥락이며, 나름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26] 김인숙이 가족 프레임이라는 서사장치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가정’은 근대 이후 공/사, 일터/가정,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에서 핵심적인 ‘여성 억압 공간’이었다. 김인숙은 이러한 대표적인 억압 공간인 ‘가정’을 특정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때 ‘가족 프레임’은 유용한 서사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가족 프레임은 가부장제의 부정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도 있다. 즉 가족 프레임은 ‘가정’이 또 하나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공간’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직장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여성이 가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정’은 여성의 (소)시민적, 민중적 ‘위치성’을 보여 줄 수 있다. 노동자성 또한 가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노동계급성이 반드시 ‘공장’에서만 획득되는 것은 아니

25) “소설이건 사건 간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 공간은 무주공산이고, ‘그만 쓰는 건 어떻겠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 「작가특집 김인숙」, 『작가세계』, 24권 2호, 2012.5, 8쪽.

26) 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6, 1~308쪽;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 모음, 2013, 1~168쪽.

다.

84년 『또 하나의 문화』는 당시의 민중문학론이 생산현장을 특권화 하고 사회적 재생산 영역을 비가시화 한다고 비판하면서, 가정과 학교 등의 여성 공간도 일종의 '현장'임을 강조[27]한 바 있다. 노동해방문학 등의 민중운동 뿐 아니라 다른 사회운동도 당대의 억압을 제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장'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다.[28] 민중문학(노동문학) 진영의 김인숙이 『또 하나의 문화』의 이론과 관련이 있는 소설을 그려 보여주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다. 『함께 걷는 길』에 수록된 단편들은 민중해방운동과 관련된,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대한 기록이자 참여[29]였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러니적 변형은 '여성' 지식인, 즉 '주류 진영의 비주류'(여성)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노동해방문학의 주류 진영은 변혁운동의 분산을 경계하여 '중산층'을 형상화 하는 것을 매우 비난했다. 그런 탓에 '주류'인 남성 작가의 노동소설에서 '현장'은 어디까지나 '공장'이었다. 반면 '비주류'인 김인숙은 가족 프레임을 통해 여성 억압의 공간인 '가정'을 노동계급성을 획득할 수 있는 '현장'으로 설정하고, '또 다른' '현장'에서 노동계급성과 소시민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설정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다.

김인숙 소설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물이 나온다. 한편은 노동계급성에 입각하여 투쟁대열에 나서는 인물이고, 다른 한편은 당대가 요구하는 그 혁명적 목소리에 눌려 도는 소시민적 욕망에 함몰되어 투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이다. 김인숙은 어느 하나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27) 고정희 · 김애실 · 장필화 · 조옥라 · 조은 · 조형 · 조혜정, 「좌담-또 하나의 문화를 펴내며」, 『또 하나의 문화』, 창간호, 1984, 참조.
28)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 『상허학보』 45집, 2015, 146쪽.
29)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나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525쪽.

려내면서 사실성을 획득한다. 더구나 일상세계에 던져진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섬세한 심리묘사'[30] 에 의해 뒷받침 된다. 이 점이 여성-학출 노동자 작가 김인숙의 특징이자 다른 작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강」「부정」「구경꾼」 등이 중간계급의 삶을 통해 노동계급성과 소시민성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면, 「함께 걷는 길」, 『79-80』 등은 (여성)노동계급적 삶을 더 핍진하게 설파한다. 「강」은 『실천문학』 복간호(88)에 실린 것으로서, 87년의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다. 여고 2년생인 희영은 셋방으로 이사온 인섭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노동자, 하층민의 삶을 이해하게 된다. 인섭은 노동자 의식을 올곳이 갖춘 인물이다. '중산층[31]의 딸'인 희영에게 인섭은 '벅찬 희망'으로 인지된다. 인섭의 직접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큰 결함이지만, 인섭은 민주·통일의 길로 흐르는 강을 스스로 만드는 정치적 주체로 서술되어 있다. 인섭과의 만남은 희영에게 그동안 세상 일에 대해 '남의 일' '남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공돌이라 부르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 치부하던 세계에서 벗어나, 불쌍함, 동정의 단계를 거쳐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로 한다. 희영은 대통령 후보의 벽보 사진을 훼손해 연행되지만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낀다.

이 소설에는 '노동자 천만 시대'임에도, '공돌이가 출세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임에도, '노동자가 대접 받는' 세상을, '내 손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피상적으로만 언급되는 약점이 있다. 아직 공장의 현실과 노동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30) 김인숙 소설의 '탁월한 묘사'에 대해서는 김재용도 언급한 바 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창작과 비평』, 18권 1호, 1990, 390쪽.

31) 중산층에 대한 개념 및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양 계급 사이에서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주체가 되기도 해서 위의 양 계급과 차별된 고유한 계급적 특성을 추출하기 어렵다(조돈문, 「중간계급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적 이질성」, 『한국사회학』 30, 1996, 276쪽). 그런 탓에 집단인지 계급인지의 규정보다 오히려 주관적인 귀속의식, 즉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간주하는 사람들의 믿음 자체를 계급적 정체성으로 놓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 관점도 있다. 함인희, 이동원. 박선웅,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2001, 26~28쪽.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자 없는 노동'[32], '노동 없는 노동자'의 초상이다. '구호'에 그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주체화라는 측면에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며.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 읊조려지고 있을 뿐이다. 당대의 노동해방문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소설은 전형의 형상화, 전망 제시 등의 여러 측면에서 낙제점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딸인 여고 2학년이 노동자와 연대하는 내용이 그려진 것은 아마 이 소설이 유일할 것이다. 노동자와의 연대의 대상은 그간 '남자 대학생'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다. 노학연대의 대상이 대학생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세태를 이 소설은 뒤집고 있는 것이다. 가정 내적 존재인, 그것도 중산층의 '딸', '어머니' 등이 어떻게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의 하나를 이 소설은 제시한다. 당시 중산층은 대체로 딸을 자기 성취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 구별 짓기를 통해 당대의 여성노동자나 호스테스들과 차별화 하면서, 조신하고 우아한 여성성의 소유자이기를 요청했다.[33] 하지만 당대 중산층의 보편적 규범과 달리, 여고 2학년도 노동자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처한 노동조건의 부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이 소설은 확인시켜 준다. 그간 남성 학출의 노동소설에서 노동자는 거의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노학 연대의 대상인 대학생은 거의 중산층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노동자가 대학생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방적 구조였다. 즉 노동자는 학출에 '종속된 주체'였다. 그에 반해 이 소설은 일찌감치 88년에 노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중산층의 딸을 제시한다. 즉 가르침을 주고받는 대상이 학출의 경우와 정반대인 것이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남성, 받는 사람이 여성인 점은 다소 안타깝지만, 노동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중산층 가정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

32) 서동진, 「노동자 없는 노동의 세계」, 『황해문화』, 2012.겨울, 99~118쪽.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33) 이혜정, 「1970년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공부' 경험과 가부장적 젠더 규범」, 『교육사회학연구』, 제22권 4호, 2012, 1~231쪽.

또한 이 소설은 가족 프레임을 통해 희영이네 식구들을 모두 당대의 정치적 주체로 위치시킨다. 다른 노동소설의 경우 '노동' 주체에만 주목하였지 '정치적 주체' '문화적 주체'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이 소설은 노동 주체 외에 정치적 주체도 설정해 놓고 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언니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모두 정치적 주체임을 확인시킨다. 언니 희선은 '민주주의'를 되새기며, 운동권 학생이 되지 못한 과거의 '용기없음'을 뉘우친다. 언니의 이런 '후회'하는 모습은 소시민성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 소설이 '도식성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김인숙 소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냥 삭제하고 갈 수 있음에도 당대의 살아 있는 '후회'의 목소리를 통해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기능을 담당케 하는 한편, 역으로 노동계급성을 강조하는 역할도 담당케 한다.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희영네 가족들이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 된다는 점이 이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이다. 가족들이 정치적 주체로 서는 과정에서 이전의 억압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희영은 생경함, 놀라움, 뒤뚱거림, 허황됨을 느낄 정도이다. 노동소설의 '결여'로 지적되는 '내면성'[34]이 이 소설에서는 생동감 있게 제시되고 있다. 야당 후보들의 단일화 실패에 분노하고, 질세라 유세장에도 나가 소리쳐 보기도 하고,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에 핏대 올려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소시민성이 드러나는 희영네 식구들의 천방지축은 탁월한 묘사에 힘입어 나름의 감동을 선사한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거의 없는 점, 식구들이 모두 '민주의 길'로 정향되어 있어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은 이 소설의 결함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자 희영네 식구들은 이내 예전에 보였던, 내면화된 굴종의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다. '진짜 우리들 대표'를 뽑자던 구호는 사라지고 '좋은 세상'은 유보된다. 희영의 아버지는 '계집애가~~'를

34) 이남희, 유리・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459쪽.

외치던 과거의 언사를 다시 들먹거린다. 오직 인섭이만이 "곧 날이 밝을 거예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라고 외칠 뿐이다. 여기서 가족들은 소시민의 부동성(浮動性)을, 인섭은 노동계급성을 확인시킨다. 이러한 전개는 소시민성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후퇴하기 쉬운지를 알려 주는 한편, 노동계급성이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음도 지시한다. 중산층 가족의 정치를 향한 꿈과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소시민들의 일상적 욕망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것이 노동계급적 전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소시민성이 가족 프레임 하에서 섬세한 묘사와 함께 드러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게 한다는 점에서 가족 프레임은 유용한 서사장치이다.

「함께 걷는 길」은 인간적인 대우와 합리적인 경제적 처우를 추구하는 노동자 부부의 이야기이다. 노동소설에서는 드물게 '아내'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노동자'에서 '계급적 주체로서의 노동자'로 전회하는 노동자들을 보여 준다. 이 소설의 '방법' 역시 남편 회사의 노조 파업을 그리되 '가족 프레임'으로 우회하여 보여 준다. 노조 부위원장인 남편의 회사가 직접 형상화 되기보다 아내들이 만든 민주가족실천위원회의 행동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그려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노동소설에서 보기 힘든 설정이다.

희재 엄마, 재운 엄마들은 '여공 출신'이지만 지금은 거의 중산층이 되어 있다. 마치 80년대의 남성 비평가들이 여성 노동자를 '일시적 노동계급'으로 보았던[35] 형상이다. 소시민성이 몸에 배어, 자기 남편들이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즉 이들은 민중의 대의에서 이미 이탈한 소시민적 전형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노조 투쟁을 그만두라고 권고하기에 바쁘지만, 남편은 장기파업농성에 돌입해 집안일은 모두 '내놓은' 형편이다. 아기 돌잔치에도 전화 한 통 없이 불참하는가 하면, 애가 아픈데도 병원 가는 것보다 가족실천위원회에 가보라고 말하는

35) 김명인, 「먼저 '전형'에 대해 고민하자」, 『창작과 비평』, 1989.12, 172~190쪽.

남편을 보고 아내는 '울음같기도 하고 터져오르는 발악같기도 한 감정의 솟구침'(44)[36]을 느끼며 분노한다.

아픈 애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먼저인가, 노조 일이 먼저인가. 도식적인 노동소설의 경우 당연히 후자라고 하겠지만, 이 소설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거냐고 이의를 제기한다.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직장 일이 더 급한가라는 물음은 당대뿐 아니라 지금에도 유효한 질문이다. 남편은 사적인 것보다 공적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하여, 아내로부터 "염병 집행분지 뭣인지, 지 집일 하나 간수 못하믄서"(44)라는 욕설을, 아버지로부터는 '제 부모도 제 자식도 모르는' '빨갱이'라는 말까지 듣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그 후 아내들은 민주가족 실천위원회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남편들의 노조 활동도 이해하고 투쟁에 가담하게 된다.

노동자의 아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은 짐승대우가 아닌(48)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노동자와 가족(아내)의 염원이 당대의 '보통 삶'이란 점을 섬세하게 묘파함으로써 절절한 감동을 준다. 즉 '계급주체로서의 노동자'보다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에 더 천착한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노동자' 개념[37]에 더 가깝다. '내 아이들의 아빠가, 내 집안의 가장이 비루하지 않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 시민적 인간적 권리를 꿈꾸는 보통 아내들의 심정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

초기에는 '일시적 노동계급'에 불과했지만, '노조가 있어야 노동자가 인간대우를 받는다는 남편의 말이 완전히 믿기지는 않지만 참 반가'운 참에, 남편이 해고되어 복직싸움을 하게 된다. 이에 아내들도 나서게 되는데, 젖먹이를 들쳐 업고 한손에는 다른 애 손목을 잡고 사장집에 몰려가 '여성부장이 구호를 선창해도 모두 어쩔 줄 몰라 웃음을 빼물 뿐 구호가 외쳐지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아는 노래가 없어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다른 노동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흔치 않은 장면이다. 그간 자신들이 '처참하게 학대받'아 온 '바보'라는 각성에 이르자 더 이상 구호

36) 김인숙, 『함께 걷는 길』, 세계, 1989. 이후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37) 서동진, 앞의 글, 107~108쪽.

외침은 쑥스럽지 않게 되고 '어미의 한으로 똘똘 뭉'쳐 '폭탄처럼' 일어서게 된다. 경찰들이 사장 대신 자신들을 연행하자 불법사장과 악덕기업주, 폭력경찰이 '한 패'임도 자각하게 된다. 당대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절심함'이 자신들을 '아주 익숙한 데모꾼'으로 만든다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라고 설파한다. 중산층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추구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중산층 여성의 사회적 체험[38]이자 실천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소설 역시 「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남편들)들의 투쟁을 전면화하지 않고 여성들의 행동을 초점화 하는 특징을 보인다. 민주가족실천위원회 소속의 여성들은 사장집에 몰려가 농성하고, 출동한 경찰들마저 제압하는 등 조그만 성과도 보인다.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해' '어미의 한으로 똘똘 뭉치는 악'으로 묘사되는 여성들의 투쟁의지는 '공장 노동자' 계급성을 넘어서 '엄마-아내-여성'들의 노동자 계급성을 보여 준다. 이 부분은 '노동자 계급의 성장 · 대두'라는 주제로 집약할 수 있으며, 아내들의 성장소설로 읽을 수 있다. '가족 프레임'을 통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인 '엄마-아내-여성'들 간의 민중연대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준다. 이는 단지 '소재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노동 영역이 '가정'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남편 회사 일에 동조하고 남편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뛰어 들었지만, 당대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아내'로서의 위치성 뿐 아니라 자신들 또한 노동자라는 계급의식을 획득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소시민적 허위성이 폭로되고 있지는 않다. '아내들'의 소시민적 꿈 자체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것은 「부정」 「구경꾼」에서이다.

이미 70년대 후반에 노동자의 삶을 정면에서 보여준 노동자 소설(수기)이 대거 등장한 바, 가족 프레임 소설은 '이념의 비전투성'이란 측면에서

38) '사회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 체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은 조정환, 「체험의 기록과 주체적 현실파악」, 『실천문학』, 1988.6, 426쪽.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개개 인물들의 개인적 치열성(김인숙이 말하는 진정성)과 내적 고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성격의 허약성이 드러나고, 작품 전체에 심리주의적 색채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 프레임을 통해 김인숙의 소설은 '연대 가능성'의 디테일한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다른 노동소설과 차이를 보인다. 노동소설 계보에서 인물들의 심리묘사가 이처럼 비교적 섬세하게 이루어진 예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가족 프레임과 그것이 선사하는 소시민성에 대한 비판, 섬세한 심리묘사에 기반한 내면성 등은 노동소설의 결함인 도식성을 거둬내는 서사장치였다. 이는 일반적인 '민중 프로젝트'와 분명 다른 부분이다.

2.2. 역사적 합창: 노동·반미의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

「강」「함께 걷는 길」에 나타난 우회화를 극복하고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세력의 의식과 행동에 관해 '내부로부터의 형상화'[39]를 이뤄내면서 민중해방문학 및 '여성-노동소설'의 또 다른 '방법'을 보여 준 소설이 『79-80』(87)과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88)이다. 80년대 들어 주변성과 파편성의 늪을 헤매던 소설문학 전반에, 당대의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 나가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과제를 수행해 보임으로써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소설문학의 대분발을 선도했다는 의의를 가진다.[40] 여성노동자를 지워버리지 않고[41] 생동감 있는 구체성을 재현해 주고 있다.

『79-80』은 제목이 말해주듯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총체적으로 형상화 한 소설이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연대를 꾀하고, 다시 광주를 통해 민중해방운동으로 집약되는 전

39) 김명인,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363쪽.
40) 김명인, 위의 글, 363쪽.
41) 루스 배러클러프, 이일수 역,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창작과 비평』 127호, 2005년 봄, 289~312쪽.

개를 펼쳐 보이면서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42]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요청되던 집단창작[43]의 사례로, '혁명의 소설화'로 평가된[44] 바 있다. 시간적으로는 79년 10.26 전후로부터 5.18까지의 사건을 다룬다. 대학 내의 노선투쟁(학내투쟁/사회민주화투쟁) 및 총학과 써클연합회와의 갈등, 노동현장과 학생운동과의 연대 문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 학보사 기자의 학생운동 참여, 야학운동이 노동운동의 범주인가의 문제, 고등학생의 시위 합류, 12.12 후 장군 실세에 줄을 대기 바쁜 정경유착의 사업가, 학생운동을 하다 대의에서 이탈해 지금은 과외교사로 부를 축적하며 소시민적 안정을 추구하는 부류,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부모의 만류로 지금은 유흥가를 전전하는 사업가의 2세들, 계엄군의 정치적 욕망, '민주주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호소하는 동네 사람들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군부와 독점자본가의 비인간성과 반동성, 소시민 제 계층의 여러 동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난과 억압을 깨고 성장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성, 노선투쟁을 둘러 싼 지식인 계층의 모순과 분열 및 투쟁주체로서의 부정성, 여성들의 자발적 각성 등 각 인물들을 당대 현실에 맞게 전형화 하고, '수배와 도피'[45]라는 장치를 통해 전국 곳곳의 현실상을 보여 주면서 높은 소설적 성취를 취한다.

이 소설은 윤익과 대현, 영이, 은미, 혜신, 강흥국, 희욱, 채현 등의 집단주인공체제를 하고 있다. 그 때문에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울

---

42) 김남일, 「30대 문인기행 7/김인숙」, 『월간 말』, 1995.5, 193쪽.

43) 집단창작은 소시민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효한 무기로 제시된 바 있다.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 구상」, 앞의 책, 56쪽. '집단'과 '공동'의 차이에 대해, '집단'이란 개념은 단순한 개인의 집합이 아닌, 일정한 질적인 재규정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유한데 반해 '공동'이란 개념은 참여한 개인에게 아무런 질적 규정도 되돌려 주지 않는 단순 협동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 소설에는 김인숙과 심산 외 2인이 참여하였으나, 집필은 김인숙만이 하였고, 당시 4인이 김인숙의 이름으로 출판되는데 동의하였으므로(심산, 「김인숙과 『79-80』」, 『79-80:겨울과 봄 사이』, 세계, 1987, 339~340쪽) 김인숙의 작품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44) 조정환, 「체험의 기록과 주체적 현실파악」, 앞의 글, 431쪽.

45) 류보선, 「희망을 향한, 멀고도 먼 길」, 『창작과 비평』, 1996, 165쪽.

정도로 초점이 분명하지 않다. 마지막 3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도 많을 정도이다(탄광촌). 운동 주체가 너무 다양하게 산포되어 있고 결집력이 부족한 느슨한 형태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큰 결함이다. 하지만 이 소설 어디에도 역사적 격변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인물은 없다. 모든 인물들이 투쟁 가운데 살아 생동하고 있다.[46] 긍정적 인물이건 부정적 인물이건 모두 생생하게 살아 있다.

가장 비중 있으면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인물은 윤익과 영이이며, 가장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부류는 영이, 은미, 혜신 등 '여성들'이다. 윤익은 이념써클에 속한 인물로서 학내투쟁에 국한할 것인지 사회민주화투쟁으로 확대할 것인지의 노선투쟁에서 승리해 서울역 집회를 주도하면서 역량을 키운다. 학생운동 및 노선투쟁과 관련하여 날로 이론적 정리를 해가면서 운동의 실천에도 과감하게 투신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 소설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인물로, 5.17 계엄이 확대되면서 탄광촌으로 피해 있다가 잡히지만 여전히 투쟁의지를 드높인다. 인정 많고, 비분강개하고(1-159)[47] 순수열정을 갖고 있으며, 불도저・멧돼지(1-150) 등의 별명으로 불리지만, 윤익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은 '결함'이라기보다 민중적 세계관을 성취해 내는 요소로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민중이 마치 허깨비처럼 주눅든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그들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투쟁의 불씨를 보자" "그러한 민중들이 있는 한 나는 외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쓰러지지 않는다"(3-334)고 외친다.

은미는 학보사 기자로서 처음에는 학생운동과 거리를 두고 기자로서의 임무만 잘 하자고 다짐하였으나, 데모 '밖'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운동에 참여하는 인물로 변화한다. 윤익을 통해서만 사회를 보(1-97)는 한계를 스스로 벗어난다. 혜신은 시인으로서, '시'야말로 '사회고발의 강력한 무기'라고 항변하지만 시에 현실 수정력이 없음을 깨닫고 학생운동에 투신한다. 총학생회 문화부장으로 대현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46) 류보선, 위의 글, 431쪽.
47) 『79-80』, 세계, 1987. 이후 이 책의 권수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처음에는 '지배계층의 역사관을 갖고 있다' '행동의 진보성과 의식의 후진성이 얽혀 있는 아이'(1-208)라는 비판을 받지만,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전경에게 맞아 12바늘을 꿰매야 하는 폭행을 당하고부터 강경파로 돌아선다. 총학생회가 5.17에 가두진출을 안 한다는 소식에 접해서는 총학 회장인 대현에게 오히려 '비겁자'라 지적할 정도로 변모한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연행으로 운동조직이 거의 무너지자 혜신은 경주와 함께 '모순이 있는 곳에 운동이 있다'(3-277)면서 새로 시작하자고 한다.

이 소설에서 가장 발전하는 인물은 단연 영이이다. 영이는 처음에는 여성노동자의식이 없던 인물이다. 오빠의 대학진학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포기한 영이는 자신은 기생충같이, 오빠는 구세주 •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오빠가 고시에 패스해 성공하면 자신이 신데렐라가 될 줄 믿는다. 그러던 것이 이제 오빠는 '쪽 나간 나룻배'에 불과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집에 세를 든 딴 방 사람일 뿐"(1-96)이다. 오빠는 이기적이고, 나쁜 세상을 선택(3-271)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지식인 남성에 대한 과도한 숭배,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던 영이를 이렇게 변모시킨 첫 번째 요인은 야학이다. 박종훈, 주효재 등의 학출 교사로부터 배우면서 현실에 눈 뜨고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게 된다. '공순이가 아니라 인간'이고,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 '덤으로 살지 않'고 '우리끼리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변모의 두 번째 계기는 계엄군들이 '기집애들을 다루는 법'을 안다면서 성적 모욕을 가하고부터이다(2-109). 계엄령이 내려질 무렵 임금인상과 관련한 파업 도중 계엄군에게 끌려가 갖은 구타와 성폭행까지 당하는 등 망신창이가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이는 여성'노동자'였지 '여성'노동자로서의 인식은 별로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자신도 성폭행까지 당한데다, 계엄군들이 '기집애들을 다루는 법'에 따라 동료인 윤정 등 여성노동자들을 옷을 찢고 앞가슴을 구둣발로 차고 바지를 내리려 하는 등 성적으로 야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여성'노동자만 골라내 성적으

로 폭행하는 것을 보고 영이는 순간 자신이 '여성'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된다.

첫 번째 계기가 영이로 하여금 '노동자계급성'을 확보케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계기는 '여성'노동자성을 깨닫게 한 것이었다. 그후 '여성'노동자임을 실천하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성노동자성'은 미약한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이 남성 노동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 영이는 사회·역사적 현실과의 구체적 연관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전형'을 보여 주며, 미약하나마 민중주의와 여성주의의 결합을 보여 준다.

영이는 학출의 한계도 비판한다. 『함께 가자 우리』 등 당대의 노동소설에서 노동자는 학출 지식인에 대해 공공연한 적의를 드러낸 바 있는데, 영이도 박종훈 선생님을 예로 들면서, 아는 것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하게 된다. 앞서 종훈은 경찰에게 야학교실을 열어 주어 수색케 하였고, 노조파업 신중론을 펴면서 영이 등의 파업을 만류한 바 있다. 영이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의 무용성을 설파하면서, "이제 우리끼리라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외친다. '종훈이 같은 놈은 최대의 욕이었고, 영이같은 사람은 최대의 찬사'[48]였다.

영이는 또 "공장문제가 곧 정치문제이고 정치문제가 곧 세상문제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회에 대한 구조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문제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노동자가 '세상 문제의 모든 것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깨트려낼 사람들'(3-268)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투쟁노선을 변경한다. '전진회'를 결성하여 "광주로 가자"(3-199)고 나선다. 영이는 노동운동의 여성해방운동으로의 전회를 보여주고, 광주로 가자고 함으로써 민중해방운동을 성격을 보이는 중요한 인물이다. 민혁은 이미 광주로 떠났고, 윤익도 지금은 잡혀가는 몸이지만 곧 광주로 갈 것임을 시사하면서, 각 운동 영역이 결국 광주로 결합될 것임을 말해

48) 심산, 앞의 글, 3-340쪽

준다.

민중해방운동과 관련하여 민혁은 미국을 제대로 파악할 것도 권유한다.

> ① 기억해라. 과거 우리의 정권은 국민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건 미국의 선택이었다. ...(중략)...
>
> 선택이란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봐라. 우리의 정권과 미국의 관계는 협력관계라고 판단하는 것과 미국이 우리의 정권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격한 차이를 갖는다. ...(중략)... 오히려 이승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식민지로 재편하려고 한 기도 속에서 선택되어진 인물은 아니었던가...(중략)... 오히려 미국이 내민 손을 이승만이 덥썩 잡아 쥐었다는 편이 더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는 그 이후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일이다. ...(중략)... 어떠한 쿠테타도 미국의 승인이 없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중략)... 10.26 그건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행동해 왔으며 어떻게 행동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1-60~62쪽)

민혁은 미국의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지만, 소설의 말미에 윤익은

> ②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 뒤안에는 항시 미국이란 괴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중략)... 오래 미국을 잊고 살아 왔었다. ...(중략)... 우리들의 그 안이한 사고를 조롱하며 미국은 이 땅을 송두리째 말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던가. 유엔군 및 한미 연합 사령관, 그의 작전권, 일부 한국군, 군중진압에 사용, 이에 동의.....(중략)... 그렇구나 혈맹이었구나! 내 나라 민중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혈맹...(중략)... 용서치 않으리라! (3-235쪽)

고 말하고, 영이도

③ 양놈 말은 싹 빼버리자구. 속다르고 겉다른 양놈 새끼들! (3-269쪽)

80년대에 이르면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관계가 민중운동과 지식 사회 내에 널리 공유되기 시작하였고, 80년대 말에는 한국의 반미주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이 '우방', '민주주의의 상징'에서 '제국'으로 바뀌고,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는 미국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직접 비롯된 것이며, 한국의 지배 권력이 미국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언급되기 시작한다.[49] 민혁과 윤익은 운동권이 왜 반미 제국주의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영이 또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더 이상 우방이 아님을 분명히 설파한다. 「성조기 앞에 서다」에는 미치지 못한지만, 주체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반미 행동이 형상화 된 부분이다. 반미를 보여준 주체적인 여성노동자가 우리 소설사에서 드물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또 한 가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혁명의 소설화'에도 불구하고, '도식성'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소설에서 도식성이 해체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시민성'이다. 노동해방운동의 여러 주장뿐만 아니라, 그 반대에 놓인 소시민들, 정경유착의 사업가, 계엄군/일반 군인들의 갈등의 본질을 잘 포착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리얼리즘의 재생'[50]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영이들이 파업을 하자 회사측은 부모들을 불러 회유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수십 페이지에 걸쳐 부모들의 회유를 소개한다. 파업현장에서 뿐 아니라 경찰에 연행되었을 때도 부모들은 수시로 등장해 데모하지 말라고 외칠 뿐 아니라, 이들이 풀려 나왔을 때도 데모하면 죽는다고 줄창 강조한다.[51]

---

49) 이남희, 앞의 책, 193-195쪽.

50) 신승엽, 앞의 글, 96쪽.

51) 아버지의 소시민성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다. 박가는 「구경꾼」에서처럼 데모를 '구경거리'로 삼는다. 그가 데모를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로지 순경인 '아들 대성이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소시민성의 극치를 보여 주지만 아버지의 순수한 아들 사랑이 진하게 전달된다.

④ 그년이 그게 미쳤지 미쳤어....제 정신이 아니야. 미친게 틀림없어. 미쳤어, 미쳤어....(중략)...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겨딜 수가 없었다. 영이 회사까지 어떻게 달려갔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벗어놓고 있던 웃저고리 하나만 들쳐 입고는 그냥 내달아 회사까지 갔었드랬는데 거기에는 벌써 몇몇의 엄마들이 몰려 있었다. 모두들 낯색이 새파래져서 수위만 보고도 굽실굽실, 살려 줍쇼, 용서해 주십쇼, 그렇게 쩔쩔 매고들 있는 판이었다. (2-117쪽)

⑤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후 어머니는 눈에 드러나게 달라졌다. 세상에 앙심을 품은 이후 어머니는 그 양심을 더 이상 가슴 속에 숨겨두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건 영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중략)...어머니는 매일 밤 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대면서, 웬수같은 놈들, 가만 놔두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원한을 내뱉어대는 것이었는데 그 소리는 영이의 귀에 다가설 때마다, 영이야 빨리 일어나야지, 그렇게 주저 앉으면 네가 내 딸이 아니다, 라는 재촉으로 들려 오는 것이었다. (3-271쪽)

④는 영희가 잡혀 갔을 때의 장면이고 ⑤는 영이가 반죽음 상태로 성폭행당하고 나온 뒤의 어머니의 변모된 모습이다. '절묘할 만큼 적확한 심리묘사'[52]를 통해 '노동자-어머니'의 내면이 절절하게 드러난다. 영이는 자신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어머니의 재촉 탓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할 만큼 어머니의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은 강렬한 것이었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일어서는 민중'으로 형상화 되어 있으며, 이 과정은 우발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장 고지식하고 소시민성에 침윤되어 있을 것 같은 예상을 깨고, 어머니를 각성하는 민중, 일어서는 민중, 운동에 동참하는 민중, 운동 주체들을 '재촉'하는 인물로 형상화 하고 있다. 영이의 어머니는 80년대 소설 가운데 가장 강렬한 어머니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여성노동자-어머니-대학생의 '역

52) 심산, 앞의 글, 3-336쪽.

사적 합창'을 보여준다. '데모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딸의 일탈을 계기로 데모를 이해하게 된다는 설정은 김향숙의 소설에서 보았지만,[53] 운동을 '재촉'하는 어머니 상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80년대에서의 이 소설의 위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위의 회유 장면 역시 '가족 프레임'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인숙 소설의 특징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소설 전체가 '매끄럽고 윤기 있는 문장'과 심리묘사로 드러나는 내면성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윤익의 '마산 사투리'는 이 소설의 경직성 및 도식성을 해체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담당한다. 소시민성, 심리묘사, 사투리 등은 노동해방문학의 계급성을 약화시키면서 이 소설로 하여금 진정성 및 사실성을 확보케 하고 있다.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88)는 베스트전자 역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를 세우고 43일 간의 파업농성을 경험했으며, 이제야 강철같이 뭉치기 시작한 시점의 노동계급성을 형상화 하고 있다. 「강」과 「함께 걷는 길」의 여성들이 가족 프레임을 통해 노동계급성에 동조, 연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여기서는 직접 투쟁 현장을 보여 준다.

이 소설은 세계체제의 한 가운데에 들어 선 다국적 기업의 노동현실과 반미문제를 다룸으로써 '문화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는 충격을 준다.[54] 특히 부사장 이상문을 통해서는 노동문제와 분단문제를 결합해 보여 준다. 1950-60년대 반미소설과 달리[55] 미국이라는 세계냉전체제 중심국, 그리고 미국인(미군)을 남한 민중에 대한 직접적 수탈자 및 가해자로 그리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주체문제와 관련해서도 몰주체적 반미, 감성적 반미가 아니라, 반제의 주체로서 여성노동자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새롭다. 1982년 이후 본격화 된 반미투쟁의 물결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며, 경제적 원조국이자 군사적 혈맹이라는 선전이

53)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 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413~449쪽.
54) 구중서, 「불행과 패기의 역사」,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7권 1호, 1989, 382쪽.
55)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해방직후~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2013, 287~332쪽.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예각화 할 뿐 아니라, 미국이 세계 자본 중심국이고 남한 민중의 수탈자이며, 민족 자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자[56]라는 이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소설에 나오는 '베스트전자'라는 다국적기업은 미국인이 사장인데, 저임금 등의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인권을 행사하려 하자 회사를 싱가폴 등의 제3국으로 옮기려 한다. 세계체제에서 자유롭게 월경하는 것은 '자본'일 뿐, 노동자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며 착취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기업의 평균 수익률의 '세배' 이상의 이윤(2억)을 올리면서도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각종 혜택을 다 받으며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이는 곧 노사갈등의 원인이 된다.[57]

이 소설은 이 땅의 노동문제의 핵심에 미국(기업)이 있다고 분석한다. 경제적 예속에 얽혀 있는 신식민 중심국과 그를 적극 활용하는 지배층의 억압과 착취의 문제를 언급한다. 미국 자본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노동문제가 신식민지의 기본모순이며 핵심모순이라 진단한다. 구체적인 노동현장을 대상으로 미국자본이 이 땅의 노동자를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가를 다루면서, 80년대 남한의 노동현장에서의 각종 문제들을 보여준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반미 자주를 주장하고 있다기보다 세계체제론 아래, 자본의 이윤 아래 내팽겨쳐져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여성노동자와 중간관리자의 시각으로 초점화 하고,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실천적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이채롭기 그지없다.

콜트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보고문학인 「하나 되는 날」[58](전태일 문학상 특별상 수상)을 토대로 한 이 소설에서 베스트 전자의 사장 리처드는 노조라면 거품을 무는 반공주의자이다. '노조=빨갱이'의 시선으로 노조창립 총회 때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노조는 공개사과

56) 조정환, 『노동해방문학의 논리』, 노동문학사, 1990, 26~28쪽.
57) 이하 「성조기 앞에 서다」의 줄거리는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1권 3호, 2013.가을, 2013,193~195쪽 인용.
58)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와 「하나 되는 날」의 비교는 후술.

와 폐업철회를 외치면서 파업농성에 들어간다. 사무직 평사원들과의 노-노 갈등도 보이지만, 결국 합세하여 미대사관 앞으로 시위행진을 벌인다. 그 사이 리처드 사장은 이미 남한을 떠난 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사장 이상문은 경찰에 사실을 말하고 연행된 노조 사람들을 석방시킨다.

이상문은 복잡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 특별한 연관이 있다. 이상문의 아버지는 인공 측의 해방1주년 기념식에 나갔다가 미군정이 비행기를 동원한 폭격에서 부상당한 후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미군 때문에 고아가 된 이상문은 양놈에 대한 분노,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된다. "양놈의 새끼들 조선 땅에서 씨도 남겨 놓지 않을 테다" "난 지금도 길거리에서 양놈을 보면 소름이 끼쳐"라고 절규하며 자란다. 양놈에 대한 즉물적 분노와 증오의 감정은 외조부모와 함께 살면서부터 없어지고, 봉제업으로부터 전자업으로 업종전환을 하면서부터는 전과 반대로 미국의 신기술, 자본력에 휘둘려 미국(인)에게 예속되어 간다. 거기에 마샤라는 선교사 부인의 호의는 이상문을 무장해제 하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있다.

상문은 아버지가 전쟁 때 빨간 완장을 차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면서 '아버지를 부정'하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미문화원 점거 농성을 하다 체포된 아들 재혁의 편지를 접한 후 '아버지 부정' 또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과정이 다소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흠이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상문으로 하여금 노조에 가담케 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결국 이상문은 아버지가 과거에 서 있던 '성조기 앞에 다시 서서' 성조기를 내리고 노조에 동참한다. 아들 재혁은 '조국의 해방'과 '아버지의 해방'을 동일시하면서 분단문제와 노동문제가 동전의 양면임을 언표한다. '운동권 아들'의 '아버지 부정'을 아버지가 변증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할아버지의 미국에 대한 피해까지 극복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에 해결한다. 이상문은 중간계급이지만, 노동자의 시각으로 선회한 결과 이룬 성과였다. 계급문제와 분단문제를 중첩시키는 데서 현실의 구체성이 다소 희생된 것은, 중간층인 작가가 '새로운 것'에 해당하는

노동자 계급의 '눈'을 작품에서 구체화 시키는데 있어 발생한 난점[59]이라 할 수 있다.

이상문의 가족사와 병행 플롯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 펼쳐진다. 노조 위원장(한경애)과 선전부장(조영순) 등 노조 간부도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60] 처음에는 '가녀린' '발길에 차이는' '머리채를 잡힌' '비명 지르는' 연약한 여성노조원들에 불과했지만, 깡패들이 폭력을 휘두르자 맨주먹으로 막아내겠다고 뭉쳐 일어서는 투쟁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아예 드러눕는다. 70년대 후반 동일방식 여성노동자들의 알몸투쟁이 연상되는 지점이다. 회사가 기계를 반출하고자 하자

⑥ "못가!"

모두들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위언장 한경애가 먼저 트럭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리고 섰다.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영순도 트럭 앞으로 달려 갔다. 영순은 부르릉 거리는 트럭의 앞바퀴 앞에 벌떡 드러누워 버렸다.....(중략)...(159쪽)[61]

⑦ 여기는 우리들의 공장이다.! 우리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우리들의 공장이다! 아무도 우리들을 쫓아낼 순 없어!(195쪽)

⑧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난한 나라 공순이인 것도 서러운데 미국놈한테까지 만만하게 보일 수는 없어! (190쪽)

⑨ 이 더러운 양키놈아!(163쪽)

---

59) 김재용,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앞의 글, 391쪽.

60) 이는 70년대 원풍모방과 동일방직의 차이이기도 하다. 동일방직의 경우 노조 간부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120~314쪽.

61) 김인숙, 『함께 걷는 길』, 세계, 1989. 이후 페이지만 표시함.

이 소설에서 노동운동의 주체는 당연 여성노동자들이다. 또 노동모순의 원인이 미국임을 먼저 자각하는 주체도 여성노동자들이다. 자신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공장을 '황금알'만 빼어 먹고 임금이 더 싼 싱가폴로 빼돌리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실천적 주체도 여성노동자들이다. 남자 사무직원들까지 리처드 사장이 도망갔다고 하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여성노동자가 노동운동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반미의 주체이며, 민중해방운동의 주체임을 설파한다.

이 소설은 반미의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소설이며, 중간관리자와 노동자의 역사적 합창을 펼쳐 보인 최초의 소설이다. 또 이를 통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도 웅변적으로 보여 준다. 중간관리자의 전회가 민족모순으로 환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면,[62] 여성노동자들의 외침 속에서 드러나는 계급성은 이 소설이 민족모순으로 환원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상문의 반미가 '민족모순'의 해소에 무게가 놓여 있다면, 여성노동자들의 반미는 '노동모순'의 해소에 무게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상문의 반미는 여성노동자들의 완벽한 승리를 일궈내는 지렛대였다. '운동'은 노동자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지식인)도 가르친다는 고전적 정식의 예술적 체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휘청거리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등의 묘사를 통해 여성 노동자/기업=노동자/사무원=여성/남성=약/강의 구도에서 출발하지만,[63] 이내 이 대립관계가 허물어지는 현장을 보여 준다. 그 결과 초기의 위와 같은 성별 이분법은 무너진다. 이는 당대의 다른 남성 작가의 작품이 보여 주는 양상과 다르다. 정도상의 「새벽기차」 등에서, 노조원들은 여성으로, 사무원과 과장 등 관리직 사원은 남성으로 배분되어 있었고,

62) 채호석, 「80년대와 90년대, 작가의 진정성의 흔적들」, 『김인숙 외』, 한국소설문학대계 85, 동아출판사, 1995, 531쪽. 채호석은 이 소설의 결말이 제반 모순들을 민족모순으로 환원한다고 본다.

63)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앞의 글, 195쪽.

업무에서도 자켓부, 드레스부, 코트부는 여성, 재단부는 남성으로 성별 이분화 되어 있다. 당대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남성관리자와 남성 노동자들보다 낮은 지위에서 일했으며, 동시에 비인간적인 모욕과 불의, 폭력을 경험한 것이 통상적이었다.[64] 남성 중심적 시선 아래, 여성성을 여전히 강/약, 지배/피지배, 남성성/여성성의 이분법으로 배치한 것이 대세였지만,[65] 김인숙은 이러한 통상적 수준을 뒤엎고 있다. 소재 선택의 진보성과 역사성,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 견지라는 측면에서 이전 소설 및 타 남성 작가들과 분명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여성노동계급성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노동소설은 대개 노동자들의 항의-탄압-경찰에 연행-다시 투쟁-회사에서의 각개 회유-선별 탄압-협박이라는 공식으로 전개되지만, 이 소설은 당대의 대다수 소설과 달리 이상문의 가족사를 곁들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가족 프레임의 변형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가족 프레임 덕택에 남한 지배를 장악한 세계자본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형상화 하지만, 「내가 그린 내 얼굴 하나」처럼 회사 내의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미 철저하게 '자본'의 세계에 묶여 있는 내면화된 식민성을 보여 주지만, 탈식민적 시선 속에서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결합하는 양상을 제시한다. 이것이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가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방법이다. 여성-노동자와 중간관리자의 연대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초독점체제 • 다국적 자본주의와 주변국 노동자와의 연대의 불가능성도 아울러 확인시키고 있어 중요하다.

---

64) 남성노동자들은 같은 직급에서도 '준 관리자'처럼 행동하였다고 한다. 이옥지, 「1970년대의 한국 여성노동자운동: '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여성과 민주화운동』, 김명혜 역, 경인문화사, 2004, 265쪽.

65)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앞의 글, 195~196쪽.

2.3. ‘소비되는 데모’와 소시민의 역설

89년의 소설들은 88년의 소설들과 좀 달라지기 시작한다. 「부정(不正)」은 「함께 걷는 길」과 마찬가지로 ‘아내’가 초점화 되어 있긴 하지만, 「부정」의 주인공 ‘나’는 「강」에서 일부 드러났던 바, 운동권 등의 삶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본다. 남편은 아파트 입구의 플래카드를 찢다가 현행법으로 연행되는데, 누군가가 플래카드에 자신의 허락 없이 ‘주민 일동’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즉 ‘나’라는 개인의 시민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남편은 아직 의협심 정도는 소유한 인물이다. 파출소에 끌려가 경찰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구타당해 병원에 입원하지만, 식구들은 모두 경찰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직 운동권 출신인 동생네 부부만 고발장을 쓰고 인권단체에 연락하고 기자에게 폭로하자고 권유한다. 즉 저항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은 운동권 출신뿐이다. 나와 친정 식구들은 모두 불안에 떨며 우려하다 못해 그만둘 것을 강요한다. 경찰은 기자 등에게 이 일을 폭로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한다. 나는 남편을 설득해 병원비까지 스스로 정산하고 몰래 집으로 도망쳐 온다. 이 장면은 소시민성의 극치를 보여 준다. “부조리에 대한 분노는 여유 있을 때를 위해 남겨 두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시댁과 친정 식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반공주의적 억압에 의한 공포,[66] 생계 때문에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소시민적 삶의 양상이 고스란히 폭로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중산층(중간계층)을 거대한 구조의 피해자로 그린다. 이들에게는 억압과 공포가 완벽하게 내면화 되어 있어 피해자성을 당연시한다. 그 결과 자신 및 가족의 이익과 안정에 관심을 두고,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시민적 이기주의’[67]가 대두된다. 그렇다고 ‘사소사

66)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나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287쪽.
67) 김재용, 앞의 글, 389~390쪽.

(些小事)'[68]로 파악해서도 곤란하다. 현실의 파편화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성찰과 현실의 전체상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김인숙이 「강」 「함께 걷는 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견지해 온 바, 중산층의 '긍정성'을 버리지 않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80년대 후반에는 중산층의 계급적 역량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어 있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그려내려는 작가의 의도적 결과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소시민이 노동계급 출신에게 비판받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비판 일변도로 전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가 중산층의 소시민적 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시민도 긍정적으로 사회변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소시민의 부정성에서의 '잉여' 부분을 긍정성으로의 전환의 요소로 배치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운동권 인물들과 비운동권 인물들이 이분법적 적대관계로 형상화 된 부분이다. 서로를 '무시'한다고 느끼면서 상대방을 혐오하기까지 한다. 이전 소설에서는 소시민과 운동권(「강」「함께 걷는 길」), 구사대와 노조(「가까운 불빛[69]」) 등의 연대가 제시된 반면, 이 소설에서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이 서로 연대하지 못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연민도, 부조리를 외면하는 자신들에 대한 변명도 없다. 운동권에 대한 '비운동권 소시민'의 무시와 혐오, 자신들의 삶과의 무관함 등이 주로 울려 퍼진다. 하지만 소시민에 대한 심리묘사는 아주 섬세한 편이다. 「강」에서의 심리묘사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아내인 '나'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이 드러내 보이는 유약함, 불안, 조금도 손해 보고 싶지 않은 이기심, 경찰로부터 미행당한다고 느끼는 공포 등 소시민의 나약함과 부동성(浮動性)이 핍진하게 형상화 되어 있다.

---

68) 신승엽, 앞의 글, 96쪽.

69) 노동자가 대학생 위장취업자에게 부채의식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질책・반성하는 장면이 나온다. '진짜 노동자'/ 위장취업 노동자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다. "노동자가 되겠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일류대학 나온 놈들도 일어섰는데, "진짜 노동자인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89쪽

「부정」이 소시민성을 담지한 채 부조리한 세계와 타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구경꾼」과 「가까운 불빛」은 데모가 '소비'되는 양상을 포착한다. '나'는 우연히 시위 현장에 있다가 경찰과 시위 학생들이 최루탄과 돌팔매로 서로 응사하는 사이, 그 자리를 피하려다 어디에선가 날아온 돌멩이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다.

이 소설에서 데모는 부조리에 대한 분노의 투쟁이라기보다 '언론의 힘' '소문의 힘'으로 대변되는 '대중' '시민'의 차원으로 이관된다. 나의 사건은 우연히 기자의 눈에 띠어 조그맣게 신문에 보도되는데, 이를 계기로 나는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게 되고, 돌팔매를 맞은 내 머리는 '역사적인 두상'이 된다. 사람들은 나를 창경원의 원숭이 구경하듯 바라보고 내 사건을 '기발한 화제'로 즐긴다. 데모에 대한 촌평들은 고작 안주감으로 '소비'된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서술자에게 '식사 뒤의 이빨을 쑤시는 것 같은 행위'(126)로 인지되고, 주인공인 나 역시 데모나 통일 문제를 주식값과 연동시켜 가늠할 뿐이다. '통일이냐 주식이냐'로 요약되는 '골 때리는 신파' 세태에서 데모는 '골 때리는 진리'로 이미 전락해 있다.

'그해 유월' 매일 밤 거리의 투사였지만 싸움은 하지 않고 다만 '구경꾼'이었던 주인공 '나'가 완벽한 일상에 빠진 형상을 보여준다. 그해 유월은 '나의 나라'도 아니었다. 이 소설에서 시민의식을 갖고 일상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정민의 목소리도 친구들에게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 친구들은 정민이 문제제기하는 '시민의식'보다, 그가 처가 덕에 쟁쟁하게 출세가도를 달리는 모습만 볼 뿐이다. 친구들은 이제 프라이든가 르망인가, 자가인가 전세인가, 그것도 특별시 전세인가 경기도 전세인가를 주로 이야기한다. 그해 유월에는 있었던 '객기'마저 이제는 추억으로 내려앉아 있음에 '구역질'을 느낀 주인공은 친구 정민이 말한 '시민으로 선다'를 되뇌이다가, 다시 시작된 데모에서 학생들을 향해 날아드는 짱돌을 보고 뛰쳐나간다. 이 행동은 구역질나는 '일상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단 하나의 '행동'이다. 반공주의적 억압으로 인해 투쟁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소시민의 경험이 드러나 있다. '구역질'과 '떨림'은 집단

적 대의에 대한 '회의'를 언표하는 것은 아님을 반증한다.

「가까운 불빛」(89)도 위와 유사하다. 이 소설은 이미 구사대 입장과 비슷해진 송창배가 주인공이다. 원창가구 설립 때부터 참여했던 송창배는 한때 노동운동에 참여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소시민적 삶에 푹 빠져 있다.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개'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자식놈한테 '공돌이 아비'로 무시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두려워하며,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모든 수모를 참을 수 있다(87)고 생각한다. 회사 측의 인물인 강과장의 행태를 보고 심한 '구역질'이 치솟고(73), 노노갈등에 대해 심한 허탈감을 느끼지만, '노조반대'를 외쳐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노동자들이 하나둘 '노조반대'를 외치자 '가슴 속에 이는 떨림을 참을 수 없어' 한다. 그러다 강과장이 회유하려고 슬쩍 넣어준 월급봉투에 백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돈에 팔린 인간'이 될 수 없다면서 노동자와 함께 하기로 나선다. 자신이 바로 이 공장의 '터줏대감'이고 노동자라고 외침으로써 주인의식을 표출한다. 원창가구 내의 노노갈등, 다른 공장 노동자들과의 갈등, 학출과의 갈등(배반감) 등이 세세히 표현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도 묘사가 가장 탁월한 부분은 아내가 민영석의 아내와 싸우는 장면이다.

「부정」과 「구경꾼」「가까운 불빛」은 '90년대의 후일담'을 일부 선취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직 '구역질' '참을 수 없는 떨림' 등 일종의 거부감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중산층의 소시민성을 비판만 하는 것도, 대의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 소설에서 중산층은 변혁주체가 결코 되지 못하지만, 동시에 결코 변혁주제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아니다. 즉 이 소설은 운동권의 계급성에 얼마든지 포섭될 수 있는 '소시민의 잉여'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열의 소설들은 여성작가의 섬세한 눈으로 이제 혁명의 시대에서 일상의 시대로 전화하는 소시민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섬세한 묘사와 더불어 리얼하게 포착해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인숙의 여성-노동소설은 일반적인 '민중 프로젝트'와 거리가 있다.

3. 맺는말

과연 80년대는 여성은 없고 혁명가만 남은 시대였는가. 김인숙의 여성-노동소설을 검토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역사적 형식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내적 형식에서 발견되는 '차이' 및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70년대가 '노동자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라면, 80년대는 '여성노동자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80년대에는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였는데, '차이'를 인식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당사자 인식'을 도출해낸 자발적 능동적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가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학출'이었다. 여성 학출은 기존의 계급 및 성 범주를 뒤흔드는 일종의 '사건'이었다. 70년대 후반부터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운동의 쇠퇴와 함께 90년대에는 '학출'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여성 학출은, 현장과 소설의 양 측면에서, '80년대적 현상'이자 '80년대적 특수성'이었다.

여성 학출은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더 이상 '엄마 이야기'에 머물거나 엄마의 기획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엄마 서사'와 결별한다. 이들은 또 이전 시대의 여성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었던 '여성수난사'와도 결별한다. 80년대 여성-학출-노동자는 수난보다 희망을 형상화 하였지만, 도식성에 빠지지 않았다. 그 결과 남성 작가와 다른 '고유한 글쓰기'가 도출되었다.

80년대의 대표적 여성 학출인 김인숙은 '역사적 형식'으로서의 여성-노동소설'의 다양한 '방법'을 보여 주었다. 김인숙의 여성-노동소설에서 확인된 내적 형식은 우선 가족 프레임을 발명해 우회·확장되는 여성의 노동계급성을 보여 준 점이다. 여성의 각성 및 성장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현장이 가려지는 한계는 있었으나, 노동현장 대신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주체되기'를 접할 수 있었다.

가족 프레임은 '가정'을 '또 다른' '정치적 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또 하나의 문화』가 주장했던 바, '현장'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

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노동해방문학 진영의 김인숙이 방법론적으로 『또 하나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가족 프레임을 통해 여성 억압의 공간인 '가정'을 노동계급성을 획득할 수 있는 '현장'으로 설정하고, 노동계급성과 소시민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가족 프레임과 그것이 선사하는 소시민성(비판 포함), 섬세한 심리묘사는 노동소설의 결함인 도식성을 거둬내는 서사장치로서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가족 프레임은 노동운동의 계급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리얼리즘의 위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다양성을 포착하는 유용한 서사장치였다.

「함께 걷는 길」은 가족 프레임을 통해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노동자'라는 개념에서 계급주체라는 전형성을 획득하는 전개를 보여 주었다. 「강」「함께 걷는 길」에 나타난 우회화를 극복하고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세력의 의식과 행동에 관해 '내부로부터의 형상화'를 이뤄내면서 민중해방문학 및 '여성-노동소설'의 '방법'을 보여 준 소설은 『79-80:겨울과 봄 사이』와 「성조기 앞에 다시 서다」였다. 이 두 소설에서는 여성노동자가 노동과 반미의 주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형상화 되어 있었으며, 민중주의와 여성주의의 결합이 확인되었다. 여성노동자-대학생-어머니, 여성노동자-중간관리자 간의 역사적 합창이 각각 연출되었다.

「부정」이 소시민성을 담지한 채 부조리한 세계와 타협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면, 「구경꾼」과 「가까운 불빛」은 데모가 '소비'되는 양상을 포착해 주었다. 「부정」과 「구경꾼」「가까운 불빛」은 '90년대의 후일담'을 일부 선취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 '구역질' '참을 수 없는 떨림'이라는 일종의 거부감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중산층의 소시민성을 비판만 하는 소설은 아니었다. 이는 변혁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동시에 변혁주제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닌, 운동권의 계급성에 포섭될 수 있는 '소시민의 잉여'를 '역설'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김인숙의 여성-노동소설은 일반적인 '민중 프로젝트'와 크게 차이가 있었다.

근대 이후 소시민은 어느 나라,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다. 이 천년 대인 지금도 중산층, 소시민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변혁도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산층(또는 가정) 소시민이 지닌 긍정성과 부정성, 잉여의 문제를 가족 프레임이라는 서사장치를 통해 묘파한 김인숙의 혜안은 탁월하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여성노동소설의 여러 계보, 즉 석정남, 공지영, 신경숙, 홍희담, 차주옥의 '방법'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80년대 여성노동소설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로 미룬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인숙, 「상실의 계절」, 『조선일보』, 1983.
_____, 『핏줄』, 문학예술사, 1983.
_____, 『불꽃』, 문학예술사, 1985./
_____, 『79-80:겨울과 봄 사이』, 세계, 1987.
_____, 『함께 걷는 길』, 세계, 1989.
_____,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사, 1993.
_____, 『당신』, 솔, 1996.
고정희 · 김애실 · 장필화 · 조옥라 · 조은 · 조형 · 조혜정, 「좌담-또 하나의 문화를 펴내며」, 『또 하나의 문화』, 창간호, 1984, 참조.

2. 단행본

강인순,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2』, 한울아카데미, 2001, 19~340쪽.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 거름, 1989, 271-273쪽.
김명인, 『희망의 문학』, 풀빛, 1990, 11~59쪽, 363~364쪽.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 2005, 15~25쪽, 363~388쪽.
_____,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 기획과 타자성의 주체」, 윤범모 외,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 2011, 240~269쪽.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1999, 82~170쪽.
_____, 『여공, 그녀들의 반 역사』, 2005, 1~860쪽.
여성평우회 편, 『제3세계 여성노동』, 창작과비평사, 1985, 121~201쪽.
오하나, 『학출』, 이매진, 2010, 1~246쪽.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학출 활동가와 변혁운동 1』, 봄날의박씨, 2015, 1~705쪽.
양규현, 『1987 노동자 대투쟁』, 한내, 2017, 1~280쪽.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1』, 한울아카데미, 2001, 120~314쪽.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 모음, 2013, 1~168쪽.
장숙경, 『산업 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선인, 2013, 1~440쪽.
조정환,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1~253쪽.
진정 · 김명희 · 조두현 외, 『386세대, 그 빛과 그늘』, 문학사상사, 2003, 1~303쪽.
최인철, 『프레임』, 21세기북스, 2016, 1~308쪽.
함인희, 이동원, 박선웅,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2001, 26~28쪽.
구해근, 신광영 역,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110~152쪽.
루스 배러클러프, 『여공문학』, 김원 노지승 역, 후마니타스, 2017, 1~356쪽.
이남희, 유리 · 이경희 역, 『민중 만들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1~490쪽.
Rancière, Jacques, *Proletarian Nights: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 France,* Random House, 2012.

3. 논문

구중서, 「불행과 패기의 역사」, 『창작과 비평』, 창작과비평사, 17권 1호,

1989, 382쪽.
김경원, 「더 나은 지평을 향한 심리의 추구」, 『당신』, 해설, 1996, 281~300쪽.
김남옥, 「'386'세대 경험의 문학적 형상화」, 『사회와 이론』 16집, 2010, 271~303쪽.
김남일, 「30대 문인기행 7/김인숙」, 『월간 말』, 1995.5, 193쪽.
김명인, 「먼저 '전형'에 대해 고민하자」, 『창작과 비평』, 1989.12, 172~190쪽.
김복순, 「노동자의식의 낭만성과 비장미의 '저항의 시학'-70년대 노동소설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사, 2000, 117~150쪽.
_____,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해방직후~19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2013, 287~332쪽.
_____,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1권 3호, 2013.가을, 2013, 173~210쪽.
_____, 「국가비상사태선언 전후 '불평등 정당화/해소'의 방법적 전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2집, 2016, 191~223쪽.
김양선, 「주변부에서 읽기의 산문성과 비극성-김인숙과 김형경」, 『실천문학』 41, 1996, 217~232쪽.
_____, 「동일성과 차이의 젠더 정치학-1970~80년대 진보적 민족문학론과 여성해방문학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1호, 2005, 154~181쪽.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2017, 15~49쪽.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3호, 43~78쪽.
김재용,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창작과 비평』, 18권 1호, 1990, 383~392쪽
류보선, 「희망을 향한, 멀고도 먼 길」, 『창작과 비평』, 1996. 가을, 156~165쪽.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 37집, 2013, 163

~195쪽.
박인혜, 「1980년대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 주체 형성 요인 연구: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의 인간화' 담론과 '여성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권 4호, 2009, 141~174쪽.
백낙청,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 비평』, 1989, 74쪽.
서동진, 「노동자 없는 노동의 세계」, 『황해문화』, 2012.겨울, 99~118쪽.
서은하, 「김인숙 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4, 1~71쪽.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 『상허학보』 45집, 2015, 117~159쪽.
신승엽, 「성찰의 깊이와 기억의 섬세함」, 『창작과 비평』 21권 4호, 1993, 92~109쪽.
심산, 「김인숙과 『79~80』」, 『79~80:겨울과 봄 사이: 3』, 세계, 1987, 335~341쪽.
오자은, 「전환기의 내면, 진정성의 분화-김인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하의 연구』 62, 2017, 285~318쪽.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 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413~449쪽.
오태호, 「상실의 사랑에서 기억의 회복으로-김인숙론」, 작가세계, 2012, 59~79쪽.
이명호 · 김희숙 · 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 비평』, 67호, 1990, 48~74쪽.
이재현, 「문학의 노동화와 노동의 문학화」, 『실천문학』 4, 1983. 19~36쪽.
이정희, 「노동문학 속의 여성상-정화진과 방현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9, 2003, 80~108쪽.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나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의 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 2015, 515~544쪽.
_____,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2016, 409~454쪽.
이혜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 『동방학지』 175집, 2016, 295, 320쪽.
장수익, 「1980~90년대 노동소설 연구」, 『한국문학논총』 75, 2017, 5~31쪽.
조돈문, 「중간계급의 계급적 성격과 계급적 이질성」, 『한국사회학』 30쪽, 96쪽, 276쪽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 『우리말글』 71, 2016, 241~273쪽.
조정환, 「체험의 기록과 주체적 현실파악」, 『실천문학』, 1988.6, 420~435쪽.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한국여성학』 제12권 1호, 1996, 138~179쪽.
채호석, 「여성문제의 자립화와 리얼리즘의 위기」, 실천문학 32호, 1993, 394~414쪽.
천정환, 「1980년대 문학·문화사 연구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2014, 389~416쪽.
_____,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학사연구』 47, 2011, 224~254쪽.
_____, 「세기를 건너온 한국 노동소설」, 주체와 노동과정에 대한 서사론」, 『반교어문연구』 46집, 2017, 127~170쪽.
최원식, 「광주항쟁의 소설화」, 『창작과 비평』 60, 1988.여름, 286~293쪽.
황광수, 「노동문제의 소설적 표현」, 『한국문학의 현단계 4』, 백낙청·염무웅 편, 창작과비평사, 1985, 81~107쪽.
루스 배러클러프, 이일수 역, 「한국 여성노동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창작과 비평』 127호, 2005년 봄, 289~312쪽.

Abstract

A Genealogy of Woman-Labor Narratives
- focused on Kim, Insook's narratives in 80's

Kim, Bok-Soon

Kim Insook was a female laborer as college student(*Hakchul*). The woman-labor narratives were affiliated to a 'historical form', phenomenons of 1980's and had a distinctiveness.

For the first time, Kim Insook showed the class characteristics of female laborer through the frame of family. Her work communicated the voices of various members of a family, which were mobilized to access the voices of contemporary political subjects. It was presented as petit bourgeois-ness.

The family frame was also peeled off the schematicism. Schematicism had been pointed out as the greatest limitation of narratives in the 1980s. Kim Insook's woman-labor narratives, which portrayed both the class characteristics of female laborer and the concept of petit bourgeois-ness, revealed these realistic asp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feminism. Second, Kim Insook presented woman laborers as anti - American. This is the inner form of the woman-labor narratives in the works of Kim Insook.

Key words : woman-labor narrative, anti - Americanism, *Hakchul*, family frame, class characteristics of female laborer, petit brougeoisness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